법화종, 신년하례서 "정상화 · 파사현정" 천명

1월 12일 의성 수도암서 봉행

종도의 통합과 미래 여는 법석
각급 스님들, "고난극복" 한뜻
원로의장 진파 스님 공개 참회

의성=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은 1월 12일 종정 도선 스님의 주석처인 의성 수도암에서 임인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기념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

법화종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종단 정상화를 위한 파사현정의 기치를 확고히 했다. 특히 종도결집과 통합을 기반으로, 수년간 지속된 종단 혼란을 종식시키고 종단의 새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모아냈다.

법화종(총무원장 서리 혜문)은 1월 12일 종정 도선 스님의 주석처인 의성 수도암에서 임인년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 신년하례는 종단을 이끄는 각급 원로 · 중진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 정상화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종정 도선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진파 스님, 원로의원 오봉 · 혜각 · 혜성 스님,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과 기획실장 관효 · 총무부장 현묵 · 사회부장 현봉 · 감찰부장 해월 스님 등 집행부 임원, 중앙종회 부의장 서안 스님과 종앙종회의원 희공 · 일우 스님, 고시위원장 정규 스님, 교구종무원장 승일(강원) · 상백(부산) · 도수(충북) 스님, 교구종회의장 지우(강원) · 덕원(경북) 스님을 비롯해 거제, 부산, 통영, 서울, 인천, 제주지역 스님들이 참석했다.

종정 도선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난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종단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지만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미흡한 부분은 배우고 개선해야 한다. 우리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종단 정상화와 발전은 총무원과 일부 스님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범의 해인 올해, 범과 같은 기상으로 법화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종단을 위한 애종심으로 힘과 원력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종단을 바라보는 종도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종단 안정과 변혁으로 더 나은 법화의 100년을 열어가자는 간절함일 것"이라며 "올 3월 차기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몇 달 남지않은 서리 집행부는 서리체제를 마감하고 덕망있고 존경받는 스님이 차기 총무원장이 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없이 종무일선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하례에서는 원로의장 진파 스님이 지난해 해종세력과 함께했던 일련의 행보들에 대한 공개참회를 해 눈길을 끌었다. 진파 스님은 인사말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세세생생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디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참회했다.

이어 원로원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종단의 암울했던 문제점들은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과 집행부 임직원들이 구종의 일념으로 삿된 무리들을 물리치고 종단 안정과 종무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종단 원로로서 후학들을 경책하고 이끌지 못한 죄가 수미단을 넘나든다. 새해에는 바른 법에 안주해 파사현정에 물러남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를 대표해 신년인사말을 한 서안 스님도 "중앙종회를 대표해 대중참회를 하겠다"며 합장의 예를 올렸다. 이는 그동안 종단 혼란 속에서 중앙종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앙종회의장이 해종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단 정상화를 저해하고 종단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참회로 분석된다.

이날 경북교구종무원장 서리 도광 스님과 마산교구 중앙종회 의원 지만 스님에 대한 종정예하 표창패도 수여됐다. 도광 스님은 제13 · 14대 경북교구 종무원장 재임 시 남다른 애종심으로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만 스님은 제19대 중앙종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으며 각각 해월 스님과 혜광 스님이 대리 수여했다.

한편 법화종은 신년하례를 나눔법석으로 회향해 눈길을 끌었다. 화환을 받지 않고 나눔기금으로 대체해 1000kg상당의 쌀을 의성읍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주형 의성읍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소외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신 법화종 여러 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포교사단 부산, 신년 다짐 출발

1월 8일, 임원 및 운영위원 교육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포교사단 부산)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8일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임원 및 운영위원 교육을 진행하고 포교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송재린 단장은 새해 슬로건을 '우리는 행복한 포교사'로 정하고 "모두가 행복한 포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며 "포교가 곧 수행이다. 수행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의 미소와 밝은 얼굴이 곧 부처님 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도법사 해륜 스님은 "포교사는 일반 불자들과 달라야 한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 공부하고 정진 수행하는 포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를 맞아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후원

1월 12일 신뇨엔 부산정사서 전달식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이 1월 12일 신뇨엔(眞如苑) 부산정사에서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원금은 총 500만 원 약정으로 2년간 나누어 후원하며, 어린이 교육 및 정서치료 등에 활용된다.

무지개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하 무지개 그룹홈)은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의 소규모 생활공간이다. 사회복지사가 엄마 역할을 담당하며 가정과 같은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무지개 그룹홈에는 4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정경 국원은 "이번 해 원주님께서 '자비 나눔을 크게 하라'는 의미로 '애타(愛他)를 널리'라는 신년 말씀을 내려주셨다"며 "정진 목표를 받고서 사회공헌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첫 나눔의 시작을 무지개홈 아동들을 위해 실현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정 스님 생가터 '마을도서관'으로 재탄생

해남군, 1월4일에 임시 개관
스님 서책 · 찻잔 등 전시해
조망대엔 불일암 의자 본뜬
의자 조형 조성 · 설치 예정



1월 4일 임시개관한 '법정 스님 마을도서관'.

'무소유'의 가르침을 글과 삶을 통해 전한 법정 스님을 기리기 위한 마을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다 지난 2010년 3월 원적한 법정 스님 생가터에 스님을 기리는 마을도서관을 1월 4일 임시 개관했다"고 밝혔다.

'법정 스님 마을도서관'은 해남군 문내면 법정 스님 생가터에 조성됐으며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반영해 설립됐다. 스님 생가터는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화장실, 법정 스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조망대로 구성돼 있다. 도서관에는 스님의 유언대로 유물을 최소화해 법정 스님 서책 14책, 법정 스님 찻잔 1점, 법정 스님 사진 2점 등이 전시돼 있다. 조망대에는 법정 스님이 앉았던 송광사 불일암 의자를 그대로 만든 의자 조형물도 설치될 예정이다.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은 해남인문학 하우스 조성사업협회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미황사 前 주지)과 고현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본부장의 고증과 자문을 받아 이뤄졌다.

미황사 주지였던 금강 스님은 당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도서관 건립을 도왔다. 스님은 "법정 스님의 생가터 복원은 스님도 원하지 않을 것 같다. 도서관을 만들어 마을에 선물하는 것이 스님의 유지를 잇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후 제가 소장하고 있던 법정 스님의 출판 서적을 전부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황사 주지 직을 내려놓고 떠나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도서관이 개관하게 돼 기쁘다"면서 "법정 스님 도서관이 법정 스님의 고향인 해남을 찾는 사람들에게 스님을 기억하고, 스님의 글과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관광객들에게 법정 스님의 사상과 전시품 설명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법정스님 생가터에 방문해 무소유를 되새기고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것"이라며 "최근 개장한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스카이워크와 연계해 역사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통도사 송천스님, 문체부장관상 수상

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서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이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송천 스님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가 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2년 박물관 · 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이 같이 수상했다.

송천 스님은 통도사 성보 박물관에서 1989년부터 7년간 학예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박물관 관리와 학예업무를 담당했다. 박물관 개관 초기부터 통도사 본 · 말사 사찰을 중심으로 유물 실태 조사에 참여했으며, 1945년 이전에 조성된 조선 후기 불화를 촬영하고 조사해 〈한국의 불화〉40권을 집대성한 공로로 2007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상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남구불교聯, 새해 이웃나눔

1850만 원 상당 성품 · 성금 전달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이하 연합회)가 1월 6일 부산 남구청사에서 임인년 새해를 맞아 '설맞이 성금 및 성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연합회는 전달식에서 성금 및 쌀 2000kg, 어린이용 마스크 2만 개 등 총 185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남구청에 전달했다. 성품과 성금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남구 내 복지관 4곳과 지역아동센터 17곳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회장 지원 스님, 감사 능후 스님, 대각 스님을 비롯해 박재범 남구청장, 신춘심 문수사 신도회장, 김두찬 남구불교연합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지원 스님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이웃주민들이 새해를 맞아 따뜻한 온정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신흥사 여래좌상 보물지정서 전달식 봉행

1월 7일 신년맞이 행사 개최해
울산북구 첫 보물에 기대 높아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는 1월 7일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의 국가지정 보물 승격을 축하하고, 지정서를 전달받는 전달식을 경내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주지 종현 스님을 비롯해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상임부회장 해남사 혜원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 회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송철호 울산시장, 이동권 북구청장, 임채오 북구 의회의장, 이상헌 북구 국회위원과 불자대중이 참여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참석자 소개, 축사, 격려사, 인사말, 보물 지정서 전달 등으로 이뤄졌다.

신흥사 주지 종현 스님은 "신흥사가 통도사보다 역사가 11년 더 깊다는 것을 알고 부임부터 100일기도를 했다. 보물 지정과 함께 어려운 분들이 신흥사에 와서 편안하고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원했다.

30년 전 신흥사 주지를 지낸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산옹 스님은 "1991년 1월 신흥사 주지로 부임하니 부처님 불상은 누각 밑에 있었고 집들은 기울어져 있었다. 천년고찰격에 맞는 불사를 하고자 노력했다. 구법당인 나한전이 문화재 자료가 되었고 단청이 문화재가 되었다. 이는 울산의 보물이자 자랑"이라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0년 전 주지로 계셨던 산옹 스님은 감회가 남다르시리라 생각된다. 신흥사는 승병을 일으켜 국난극복의 중심이 되었다. 전란 속에 여래좌상의 가피로 극복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 보물 지정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 울산시 북구 최초의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돼 영광스럽다. 보물 승격은 신흥사 스님과 신도, 주민 모두의 쾌거"라며 "향후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신흥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2019년 1월 11일 울산시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한 조사가 실시됐다. 2021년 3월 문화재청 신청 후 구랍 22일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됐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넓적한 얼굴과 긴 눈썹에 작고 오똑한 코, 깊이 패인 입술 가장자리와 볼록한 턱을 가진 외형으로 온화함과 개성이 느껴진다. 재질은 규산염의 일종으로, 흰색 광물인 불석이다. 특히, 1649년 불석산지인 경북 포항 오천읍에서 돌을 채석해 조성하고, 배를 이용해 신흥사까지 옮겨온 사실이 발원문에 남아있다. 당시 불석 불상의 제작지와 운반경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나누우리, 미얀마에 백신구입비 지원

(사)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구랍 29일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에 긴급 구호성금 1만 달러를 송금했다.

긴급 구호성금은 미얀마 국민들의 코로나 백신 구입비로 활용된다. 백신구입비는 (사)나누우리 이사 스님들의 개인 후원금과 해외구호자금 예산으로 긴급 마련했으며 군부 쿠데타로 힘든 가운데 백신 부족으로 고통 받는 미얀마 국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전달했다.

(사)나누우리는 지속적인 나눔과 강연회를 개최해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상징 '세손가락 배지' 2000개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7월에는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를 초빙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현재 (사)나누우리는 의료용품 지원을 위해 미얀마 방문을 계획 중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